

제 17 호

사순절 제 3 주일

1973. 3. 25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축사]

## 우리의 이 세 결음을

김 진 소 신부

오늘 본 교구 사제단의 으뜸이신 주교님의 서품식을 집전 하여 주신 추기경님과 주교님들, 그리고 바쁘신 일들을 져혀 두시고, 오늘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본교구 사제단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교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주교님의 키가 한치나 더 커 보이십니다. 처음 성좌의 임명 소식을 받으셨을 때, 주교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못내 힘들어 하시더니 오늘 받으신 책무는 신앙에 순명하신 것으로 알면서 어색치만 앓았다면 그 용기 앞에 만세라도 몇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루하게 추웠습니다. 꽃바람 시샘처럼 엇그제 내린 눈같이 우리는 몇일전 본 교구의 목자이시던 한 대주교님을 잃고, 끝까지 추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후련하게 개인·봄날 같습니다.

지금 봄을 느끼며 노래하는 대지는 오늘 우리의 가슴이요, 자연의 고단한 작업을 계절의 대지가 시작하는 것도 주교님과 우리 사제단의 것입니다.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이 있다면 새 생활, 새작업, 새 역사를 구현하는 주교님과 사제단에 일하라는 염원이요, 힘을 기르라는 호소요, 성실하라는 용기의 받침일 것입니다.

축사가 아전인수 격의 인사가 아니요, 더구나 주교직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탐석의 명예도 아니요, 생존경쟁의 전리품도 아니라면, 우리 사제단이 드리는 축사는 축복받은 오늘의 의미를, 주교님의 생활중에서 다짐시켜 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작오요. 서약이 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사제단도 자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교 직무대리로서, 사제단을 이끌어 오신 주교님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을 체험했기 때문이요, 우리의 기대가 성신께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희망스러운 것은, 주교님은, 이 지방의 토산이요, 이 지방의 피부를 지니시고 이 고장과 함께 신앙과 인생의 원숙한 연륜을 지니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대사회관(對社會觀)이 사회 현실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 지역의 봉사작업에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질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에서는 새살림을 꾸미는 주교님과 사제단을 향하여 수많은 귀와 눈이 귀 세우고 주시할 것입니다.

방황하는 현실은 교회에게 지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헌신하는 역사의 창조를 갈망합니다. 부정 할 것은 부정할 줄 아는 권위, 개조할 것은 개조할 줄 아는 권위, 당황하지 않는 권위, 편견과 사이비 진리를 식별하는 현명한 통찰력의 권위를 향해서 눈망울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순절은 있으나 부활은 어렵습니다. 생명의 진가와 영원의 확신과 신념에 심약하고 신앙에 유연한 시대, 정의와 진리와 선의 가치가 아전인수격이 되는 세태안에서 인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 풀을 싹피우는 봄 숲의 비처럼 교회는 인간에게 진정 용기와 희망이 되어야 할 기동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도덕으로, 교회를 개인의 편협한 수도장으로, 부활을 철학으로만 오인하려는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교정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교님이 성좌의 임명 소식을 받으시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회는 인간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이라고 요행과 순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사제단은 협동과 신뢰와 사랑의 중량감을 다시 다짐 합니다.

사람이 가식과 허위를 가장 저주할 인간의 본질로 여긴다면, 진정에 기초를 두고 진실과 조리와 정열을 담은 주교님의 현하 구번(懸河口辯)에 누가 이끌리지 않겠습니까.

미세한 허락과 약속에도 충성과 의리를 지키시는 주교님께 누가 신뢰를 잊겠습니까. 침착과 위엄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면서도 은유와 친절과 다정함을 무언으로 표현하시고, 비록 하잘것 없는 의견까지도 존중하시고, 조심성과 질서가 바르시면서도 남의 큰 실수에는 영똥한 웃음으로 어루만지는 그 인격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협동과 충정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교님!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주교님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끔 느끼는 일입니다만 항상 젊고 새롭게 현실을 보시고 일에는 과학적 인과를 강조하시는 자세는 예민하신 시대의 방향 감각과 명석하신 통찰력의 결과요, 완전히로 향하는 인간의 노력을 실감시켜 줍니다.

인간의 바람직한 현실과 역사를, 조속히 이루려는 듯 최선을 다 한다지만, 무리는 새로운 악을 가져온다는 생활의 교훈도 기억 납니다.

오늘은 주교님이, 평소 우리에게, “급해 하지 말고, 하는 체 하지 말고, 천연스럽게 그러나 쉬지 말고, 조금씩 고쳐가고, 새로워 가라”고, 들려주신 말씀을 조용히 들며 드리고 싶습니다.

주교님!

직책이 주는 중량과 부피에, 소박한 걱정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니실 주교님의 가슴에 우리 사제단은 그 능골이 되겠습니다. 관을 쓰실 주교님의 머리에 우리 사제단은 그 목이 되겠습니다.

주교님이 젊으실 지팡이에 우리 사제단은 그 팔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다짐전에 성신이 임하시길 기도 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1973. 3. 19

<전주교구 사제단 대표>

✽ 이 주일의 미사 ✽

□ **임당송** 내 너희 가운데서 섬김을 받게 될 때, 너희를 만방에서 불러 모으고, 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리리니, 너희는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여 지고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 **독서** (고린토전서 1:22-25, 성서 p.372)  
우리가 선포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혜이다.

□ **복음 전 노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보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 **복음** (요한 2:13-25, 성서 p.206)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저희들은 너무도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 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두려워 하는 마음이 많습 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만나는 사람에게 마다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 주여, 우 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 이 우리의 생을 당신께 의탁하게 하여 주소서◎

3. 주여, 저희가 사나 죽으나 항상 당신이 우리와 함 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소서◎

■ **맺음 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이의 목자시오 임금이신 천주여, 친히 주 의 일꾼 길야우구스며노를 성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 보시어, 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신도 들을 보살피다가 마침내 맡겨진 양무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 니이다. 아멘.

□ **영성체송**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 처가 있사와도 내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만군의 주시여, 내 임금님, 내 하느님이여,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오니, 길이 길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 이 주간의 성경 ✽

- 26 (월) 독서(로마서 10: 1-4, 성서 P. 356)  
복음(루 가 4: 24-30, 성서 P. 133)
- 27 (화) 독서(로마서 10: 5-13, 성서 P. 357)  
복음(마태오 18: 21-35, 성서 P. 43)
- 28 (수) 독서(로마서 10: 14-21, 성서 P. 357)  
복음(마태오 5: 17-19, 성서 P. 8)
- 29 (목) 독서(로마서 11: 1-10, 성서 P. 358)  
복음(루 가 11: 14-23, 성서 P. 159)
- 30 (금) ✽ 금육의 날 ✽  
독서(로마서 11: 11-16, 성서 P. 359)  
복음(마르코 12: 28-34, 성서 P. 107)
- 31 (토) 독서(로마서 11: 17-24, 성서 P. 360)  
복음(루 가 18: 9-14, 성서 P. 179)

□ 양지쪽 □



세 상 인 심

세상 인심이 고약타고 해서 생긴 말들이 많이 있다.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여 쫓고 세력이 없으면 푸대 접하는 세상 인심을 말하는 열량세태(炎涼世態)라는 단 어가 그 대표적이다. 얼마나 인심이 사나우면 <눈 잠으 면 코 베어 먹을 세상>이라는 속담이 전하여 내러울 지 경인가? 어느 정도가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다.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러지는 않는지도 모르겠다.

요사히 우리 전주지가 큰 일을 여러 차례 치뤄 내고 있다.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주교님 서품 행사를 비롯해서 전국 교육자 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손님 들을 치루자니 에피소드들도 갖가지다. 대개는 사람을 치루내는 행사들에는 인심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 런 계기에 우리 전주 교구 신자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호평이든지 악평이든지.

은 교구 신자들이 하나가같이 협조해 주어서, 지나친 평 인지는 몰라도, 주교님 서품 축하행사가, 호평을 받았다 전국 교육자 대회 행사를 위해서도 전 시민들이 조조 청 소부터 시작해서 민박에 이르기 까지 협조를 하는 것으 로 보아 성공리에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전라도 인 심이 어찌구 저찌구 하던 말들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 여 <인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옛부터 사람들은 등다습고 배부르면 일차적으로 만족 하게 된다. 하루 세끼의 먹은 일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죽이고 했던가? 축하연 에 참석하여 과자 한조각도 제대로 못먹었다고 해서 영 터리 행사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전주의 그 유명한 값싸고 안주 좋은 술잔 때론에 인심 한번 좋다는 이야 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자 보니 딸을 시 집보내면서 빚을 지고 집을 팔아야 하는 악습이 생기고 그걸 없애자고 법을 만들어 내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닌 가? 정말 이래야 하는 건가?

우리가 보통으로 인심이 좋다니 나쁘다니 할 때의 인심이란 말의 뜻은 이렇다. 「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알아 주고 도와주는」 당신의 인심은 어떤 편인가? 지금 은 바로 사순절이다.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증양성당 옆 (☎ 7398)

✽ 이전안내 ✽

등산용구 일체 취급

요셉 산악 센터

교우에게 특별 할인  
전동 3가 명산 약국 앞  
김대원 (요셉)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미 소



박 울리ানা

여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미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골짜기 사잇길에서의 나그네의 긴 인생행로.....비록 고달픈 나그네의 여정이지만 그 고달픔 속에서도 그대로의 미소를 뽐기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美」가 아니겠습니까?

- 사랑하는 자에 대한 미소!
- 용서해 주는 자의 미소!
- 피로움을 덜어 주는 우정의 미소!
- 마음이 가난한 자의 미소!
- 미소!

「미소는 전기처럼 돈도 안들고 그 이상으로 밝은 빛을 낸다」고 말씀하신 뵘에르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전기처럼 돈도 안들고 그 이상으로 빛을 내는 이 미소는 진정 겸손한 자에게서만이 풍기는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겸손한 자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내안에 내가 가득차 있다면, 어떻게 가득찬 내안에 다른 누구를 받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워진 마음이라야 우는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의 피로움을 내안에 받아 드리며 내안에 받아 드림으로써 풍기는 그 미소야말로 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일 것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사랑의 반사이겠지요. 우리는 이 빛을 더욱 더 밝히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워진 자의 삶의 의미란 어쩌면 비운 그대로의 「가난한 자를 향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가난한 이는 진복자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라는 진복팔단을 기리며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비우고 내안에 다른 나를 받아 드림으로써 항상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인간」

옛부터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라는 속담을 우리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는 정이란 먼저 상대방에서 내게 베푸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는 주체를 객관적 위치의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위로 받기 보다는 남을 위로하고, 양해 받기 보다는 남을 양해하고, 사랑받기 보다는 남을 사랑하여 달라」는 가르침을 본받아 항상 나 자신을 비운 가난한 자가 되어 가파른 현대 사회에서 메달라 가고 있는 미소를 남이 먼저 주기 바라지 말고, 먼저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노송동 천주교회)



\* 감사합니다 \*

공경하을 김재덕 주교님의 서품과 착좌의 행사에 베풀어주신 각 본당 사도회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주 시내 6개 본당 사도회의 노고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1973. 3.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 협의회  
회장 송영선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 3498)

- 26 (월) 외국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27 (화) 젊은이의 광장-유정훈 신부 지도
-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 (독어(A), 오후 4:30-5:30)

- 29 (목)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 (불어, 오후 5~6시)
- 30 (금)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 (독어(A), 오후 4:30-5:30)

\*교우들의 전당\*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6094

\*축 발전\*

동남 샵프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소

제4지구 단합대회 (3월 28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 전주 시내 각 본당 사도회 부 차장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전주 남부 지구 울뜨레아(3월26일 오후 8시, 성심여교)

시

꾸르실로 전주 지구 울뜨레아가 남부지구 (복자, 서학동, 전동)와 북부지구 (노송동, 덕진, 중앙)으로 나눠 있습니다. 남부지구 관내의 꾸르실리스타는 3월 26일 오후 8시에 성심여교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임원 간사 이영희, 지도신부 유장훈

중암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부녀부 간부 회의 (오늘 공식 미사후)
- 2. 애령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 3.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사순절 신자 생활 지침 ◎

사순절 제3주간 (3월 25~31일)

-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3월 29일(목) 오후 8시
- 성체 강복 및 말씀의 전례
- 지난 주일 봉헌금 35,300원, 감사합니다.

29일 미사기도회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 1. 재속 혈제회 (다음 주 오후 2시반, 전동)
- 2. 신학생 후원 기금

신학생 후원 기금에 협조해 주신 분들은 사무장 이정호씨에게 1회 불입금을 내 주시면 일괄해서 은행에 불입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 지난 주간 성미 4말 9되
- 지난 주일 봉헌금 14,553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김낙철

- 1. 불 판공 성사 일정 3월 29일-내어두리 31일-신리 30일-외어두리, 석장리

- 지난 주간 교무금 17,35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8,23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재속 혈제회 간부회 (3월 31일 <토> 오후 7시반)
- 3. 성가 연습 (매중 목요일 오후 7시반) 부활 축일 준비를 위한 성가 연습입니다.
- 4. 위령 미사 (3월 26일 11) 사도회장님 부친 (이 방지거) 1주기에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1,72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불 판공 성사 안내 4월 4일(수)-교동, 기타 6일(금)-풍남동, 노송동 5일(목)-완산동, 중앙동 7일(토)-전동
- ① 신약 성서 「로마서」 (P.337~379)를 한번 읽읍시다.
- ② 사순절 애공전, 교무금 준비 ③ 기일 엄수
- 2. 방지거 3회 월례회(오늘 오후 2시, 복자성당)
- 3. 학생교리 (매주 월 공식미사 후) 학생예비자 교리(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4. 학생회 의장단 회의(다음주 일 오전 9시) 각 팀대표 2명씩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5. 부활절 영세자 특별 교리 매주 화.수.목.금 오전 10시와 오후 8시
- 지난 주일 봉헌금 27,698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미사 시간 변경 (밤 미사는 오후 7시 반에)
- 2. 브레시디움 회합시간 변경 치명자의 모후-금요일 밤 7시반
- 3.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4. 피정비 미남분 분남 요양 3월 말까지 1회 분을 사무장님이나 푸른 양지회에
- 축 결혼 ○ (3월 30일 11시) 신랑 조성만 군과 신부 이성자(아가다) 양
- 지난 주일 봉헌금 6,630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누계	5,900,800원		
남원 누계	50,000원	덕진 누계	50,000원
복자 누계	1,265,000원	서학동 누계	335,800원

한울순(5천원), 원정애(2천원), 신점순(천원)  
 전동 누계 1,715,000원  
 중앙 누계 2,485,000원  
 중노송동 최성전(5천원)      감사합니다.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병구(빈첸시오)

아크릴, 페인트, 실크특수인쇄  
간판 제작, 페넌트, 전주 광고

월세계 광고사

대표 이상신(바오로)  
전화 6109-7447  
전주극장 동편